

농촌 노인의 역할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Role Type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Rural Areas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겸임교수 이 미 영

Dept. of Family Welfare, Daegu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Lee, Mi You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ole types that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rural areas. The research subjects were 1,000 people aged 65 years and over living in the rural areas of Korea.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substituting the role of rural elderly people into the role type of Rosow, the family role was drastically decreased, the health and self-management roles were increased and the social role was not changed much. In other words, the role type of the rural elderly supported the hypothesis proposed by Rosow. Second, life satisfaction was affected by monthly living expenses, social role, educational level, gender, farm, and religion. In order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rural elderly, it is necessary to build programs and infrastructures that can play social roles in rural areas.

Key Words : 농촌 노인(rural elderly), 역할(role),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생활시간(life time)

I. 서론

한국의 고령화는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한 통계청의 예측보다 더 빠른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도시와 농촌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이면서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7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초고령인구 비율이 30.1%이었고, 농가 경영주의 41.99%가 70세 이상으로 농촌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는 농촌 지역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려, 농업의 생산성 하락, 농업기술의 발전 저해, 소득 감소에 따른 농가의 양극화 심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할 소지가 있으며(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농촌은 경제활동, 의료 환경, 노인 생활지원 환경 등이 도시지역과 상이하므로 농촌지역의 노인생활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이미경·최영순·남은숙, 2017).

일반적으로 노년기라고 하면 역할상실, 건강 악화, 은퇴, 빈곤, 의존 등 부정적 용어들이 많이 떠오르지만,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선 우리 사회에서 100세 시대를 희망하는 가운데 노년기가 단순히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감을 경험하고 기대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강희엽·이철원·이민석, 2017). 즉 노년기는 단순한 생존이나 수명연장에 역점을 둔 의학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차츰 생의 의미와 질적인 삶이 더 고려되어야 하며(McDowell & Newwell, 1987) 노인이 생활에 더 만족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만족도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Neugarten, Havinghurst & Tobin(1961)에 의하면, 생활만족도란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고, 긍정적 자아상을 지니고 자신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였다. 즉 생활만족도는 노년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발하게 연구되어온 개념으로 모든 노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로 여겨지며 성공적인 노화의 지표로도 간주되고 있어서,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Berg, 2008; 이보람·이정규, 2016 재인용).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살률 감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생활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향상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며, 대부분의 노인복지정책들이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도시화, 산업화 이후 노동이 전문화되고 상품화되면서 가족 단위의 생산기능이 붕괴되고, 전통적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정신적 중추로 존중받던 노인들이 최근 들어서 그들의 가치와 역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Rosow는 노년기가 다른 생애주기와 비교하여 기대되는 역할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노년기에의 역할 전환이 용이하지 않아 노인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혼란 속에 당황해하는 가운데 노년기에 들어간다고 하였다(최성재·장인협, 2012).

노년기의 특성과 역할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에는 역할이론(role theory)과 활동이론(activity theory), 지속성 이론(continuity theory)이 있다. 역할이론은 노년기를 새로운 역할을 취득하기보다 이전에 수행하던 역할을 상실(예: 퇴직)하는 생애단계로 본다(이소정, 2013). 노인은 약화된 건강과 죽음의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노인 스스로 에너지를 보존하고 자신의 내면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사회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할 때 역할상실이 일어나며(최성재·장인협, 2012), 이러한 역할상실은 노인들의 사회적 정체성과 자존감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으며(Hooyman & Kiyak, 2005: 이소정, 2013에서 재인용), 노인들의 정서적, 정신적 부적응 문제(고독, 우울, 자살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유재남, 2011; 장석준, 2010) 노인의 역할은 노년기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활동이론은 역할이론과 반대되는 이론으로, 노인에게는 퇴직으로 인한

여 상실된 역할활동을 대치할 만한 다른 활동의 참여가 필요하며,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친밀한 활동을 할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유지된다고 본다(최성재·장인협, 2012). 지속이론도 활동이론과 마찬가지로 노년기 역할의 긍정성에 대해 강조하며, 인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으며, 성인기 동안 형성된 특성을 유지하게 되는데, 생활만족도는 자신의 인생경험과 비슷한 활동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이소정, 2013). 이상의 이론을 종합해 볼 때, 노인 역할은 중요하며, 생활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 역할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근로활동인 경제적 역할에만 초점을 둔 연구(김왕기·한정란, 2016; 유용식, 2016; 박평, 2013), 돌봄 등과 같은 가족 내 역할에만 초점을 둔 연구(김주현, 2016; 최인희, 2014; 최영·차승연, 2013)가 있으며, 사회적 역할은 여가활동에 초점을 둔 연구(김현국·박영순·송영명, 2012; 한상미, 2011), 종교 활동 참여에 초점을 둔 연구(윤현숙·원성원, 2010),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초점을 둔 연구(신수태·빈성오, 2011) 등 다양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하나의 역할에만 초점을 둔 연구라는 한계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2-3가지 역할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보람과 이정규(2016)는 사회적, 경제적 참여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이소정(2013)은 가족 돌봄, 사회참여, 근로활동과 삶의 만족을, 이정훈, 이한우와 이옥자(2014)는 공식적 역할(사회기관이나 단체활동 참여, 투표, 자원봉사활동 등)과 비공식적 역할(교제, 가사, 가족보살피기, 취미 등)로 구분하여 생활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는 역할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Rosow는 노인역할을 유형화한 대표적인 학자로, 지위와 역할 유무에 따라 제도적 역할, 희박한 역할, 비공식적 역할, 무역할 4가지로 역할을 구분하였다(최성재·장인협, 2012). 무역할은 지위와 역할 둘 다 없는 상태로써 사회적 의미가 거의 없으며, 제도적 역할은 경제적 역할과 가정 내 역할을, 희박한 역할은 건강관리, 개인 유지와 관련된 역할을, 비공식적 역할은 참여, 봉사 등과 같은 사회적 역할을 의미한다. 이 중, 제도적 역할과 비공식적 역할은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으나(이보람·이정규, 2016; 이정훈 외, 2014; 이소정, 2013), 희박한 역할은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65세 이상 노인은 본인의 건강에 대하여 37.0%만이 건강하다고 평가하였으며(통계청, 2018), 조희금과 이미영(2017)은 영양상태가 위험한 농촌노인 71.1%,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농촌노인 69.4%, 신체기능이 나쁜 농촌노인 79.5%로 전반적으로 농촌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하였다. 노인들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는 전년 대비 진료비 증가율에서도 확인가능하다. 건강보험상 진료비는 전체의 39.0% (27조 1,357억원)로 전년보다 10.5% 증가하였고, 1인당 진료비도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인들의 건강상태, 진료비 증가는 노인들의 건강관리 및 개인 유지 관련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Rosow가 분류한 희박한 역할도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Rosow는 노인역할을 경제부문, 사회부문, 가족부문, 개인부문 등 역할을 통합적으로 살펴봐왔음에도 불구하고, Rosow의 노인역할 유형을 활용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 노인들의 역할을 Rosow 역할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 역할 유형들이 농촌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농촌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첫째, 노인들의 일상생활 중 행하는 여러 역할 가운데 어떤 역할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여 농촌 노인들이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둘째,

Rosow의 역할 유형 관점에서 생활만족도를 다룬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농촌 노인의 삶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직업세계를 떠나 사회에서 역할이 축소되어 일보다는 가사노동시간이 길어지고,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며 긴 여가시간을 가지게 된다. 노인에게 있어 여가는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강제로 부여된 성격이 강한데, 이러한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고독, 소외, 우울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며, 이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본 절에서는 농촌 노인의 삶을 생활시간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생활시간은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뿐 아니라 시간의 경과와 함께(과정을 통하여) 그의 역할로 고착될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이다(양영순, 2007).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통계청, 2015)에 따르면, 농촌 노인들은 하루 24시간 중 8시간 8분을 잠자고, 1시간 54분을 식사 및 간식시간으로, 1시간 16분을 기타 개인유지(건강관리, 위생, 외모관리 등) 시간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필수생활시간으로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노인들에게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 노인들은 농업 노동, 기타수입노동, 가정관리, 이동 등의 의무적인 활동에는 7시간 38분을 사용하였는데, 이 중 3시간 17분을 일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이동 1시간 25분, 가사노동(가정관리, 가족원 돌보기 등) 2시간 5분을 사용하였다. 이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적 역할에 들어간다. 여가활동은 하루 중 5시간 5분을 사용하였는데, 이 중, TV/라디오, 신문/잡지 등과 같은 미디어 이용이 2시간 35분으

로 가장 많았으며, 교제활동 46분,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개인 취미활동, 유흥 등) 44분, 종교/문화/스포츠 활동 37분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종류별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농촌 노인들은 여가활동으로 적극적인 여가보다는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많이 하였다.

2. 노인의 역할 유형

역할은 개인이 집단이나 사회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회적 위치나 지위에 따라 한 개인에게 기대되는 행동이다. 노년기 역할에는 경제적 역할과 돌봄, 가사노동 등과 같은 가족 내 역할, 여가, 종교,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사회적 역할 등 다양하다.

이소정(2013)은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두 가지 기준(공식성 vs 비공식성, 유급 vs 무급)에 의거하여 가족 내 돌봄(비공식적이면서 무급), 사회참여(공식적이면서 무급), 근로활동(공식적이면서 유급)으로 유형화하였으며, 이보람과 이정규(2016)는 종교모임, 친목모임(계, 노인정 등), 여가/문화/스포츠 관련단체(노인대학 등), 동창회/향우회/종친회,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등 한 곳이라도 참여하는 것을 사회적 역할, 소득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을 경제적 역할로 구분하였다. 이정훈 외(2014)는 노년기 무급의 공식·비공식적 생산적 활동을 노인의 가치 있고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규정하고, 복지시설이용, 사회단체활동참여, 투표하기, 자원봉사활동은 공식적 역할로, 친구만나기, 가사활동, 손자녀 돌봄, 취미활동은 비공식적 역할로 구분하였다.

Rosow는 노인 역할을 지위와 역할의 유무에 따라 제도적 역할, 희박한 역할, 비공식적 역할, 무역할 4가지로 역할을 구분하였는데, 그 역할 분류는 <표 1>과 같다(최성재·장인협, 2012). 이 중 무역할은 지위도 역할도 없는 상태로써 이러한 경우는 실제적으로 사회적인 의미가 별로 없으며, 이러한 행동은 역할행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하고, 3가지 역

할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지위와 역할의 조합에 의한 여러 가지 역할유형

역할유형	지위	역할
제도적(institutional) 역할	있음	있음
희박한(tenuous) 역할	있음	없음
비공식적(informal) 역할	없음	있음
무역할(non-role)	없음	없음

출처: Rosow, I.(1976). Status and role change through the life span.

최성재·장인협(2012).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108.

첫째, 제도적 역할은 지위와 역할이 분명히 있으며, 공적인 지위를 맡고 그 지위에 따른 규범적인 역할 기대가 분명히 있는 경우로 회사에서의 부장, 가정에서의 생계유지자로서의 역할 등으로, 일반적인 역할 분류의 경제적 역할과 가족 내 역할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비공식적 역할은 공식적 지위는 없고 역할만 있는 형태로, 특정 지위나 위치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계속하여 행동 그 자체가 유형화된 상태에 있는 역할 행동으로, 참여 및 봉사활동 등과 같은 일반적인 역할 분류의 사회적 역할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희박한 역할은 지위는 있는데 역할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희미한 역할로써, 노인이라는 지위를 생리적, 사회적으로 유지하는데 행하는 활동으로 그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양영순, 2007). 희박한 역할은 건강 관리, 개인 관리와 같은 개인 유지를 위한 활동들을 의미한다. 또 Rosow는 이러한 역할 유형을 근거로 제도적 역할의 중요성이 중년기까지 서서히 증가해서 중년기 후반에 정점에 이르고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희박한 역할은 아동기에서는 높았다가 중년기 전반기까지 낮아졌다가, 중년기 후반부터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여 노년기에 들어오면서 더욱 높아지는 반면, 비공식적 역할의 중요성은 중년기에 도달할 때까지 점

차 증가하다가 중년기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노년기에 들어와 어느 정도 낮아지기 시작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다른 두 가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하여 그 변화가 크지 않은 편이라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생애주기 가운데 건강관리, 개인 유지를 위한 활동은 특히 노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한계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역할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일반적인 역할 유형이 아니라 Rosow의 역할 분류에 따르고자 한다. Rosow의 역할 유형을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는 양영순(2007)의 연구가 유일한데, 이는 노인들의 인구학적 특성, 성역할인식이 각 역할 유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였다. 현재 노인들의 삶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정책이나 사업에서 성공적 노화, 삶의 질, 행복, 생활만족도 등이 중시되고 있는 만큼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역할과 생활만족도를 연계시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노인의 역할과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란 생활전반에 걸쳐 느끼는 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판단 혹은 자신의 기대에 대한 충족으로, 한 개인이 노화되어 가는 현실에 적응하여 얻을 수 있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Monica, 1997; 이해자·전동일, 2011에서 재인용). 노인의 역할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각 역할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역할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이보람·이정규, 2016; 이소정, 2013; 강지애, 2007), 노년기의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김명숙·고종욱, 2013). 반면, 이해자와 전동일(2011)은 도농 전체의 경우, 경제적 역할은 생활만족도와 부적 관계가 있으나, 농촌의 경우는 도시와 달리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이는 경제적 역할을 하는 목적과 관련 있는 것으로, 경제적 필요 여부에 따라서 경제적 역할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보람·이정규, 2016). 또 유급노동의 참여여부는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차이가 없다(김주현, 2007)고 한 반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경우 비참여 노인에 비해 안녕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권구영·최정민, 2007), 노인일자리 참여 효과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강신옥·방혜선, 2010) 경제적 역할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족 내 역할 중 돌봄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상(배우자, 손자녀)에 따른 비교연구, 연령(중년층, 노년층)에 따른 비교연구 등 다양하다. 김주현(2016)은 배우자보다 손자녀 돌봄을 수행하는 여성노인이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돌봄 참여 여건에 따라서 생활만족도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정순돌, 박애리와 기지혜(2015)는 중년층의 경우 손자녀 돌봄과 생활만족도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지만, 노년층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돌봄의 지속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 등 돌봄행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이소정(2013), 최인희, 김영관과 염지혜(2012)는 돌봄 부담은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혜자와 전동일(2011)도 도농 전체의 경우, 손자녀 양육의 보살핌은 생활만족도와 부적 관계가 있으나, 농촌의 경우는 도시와 달리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김은정과 정순돌(2011)은 양육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와 강한 부적 상관을 가지며, 적절한 양육보상이 있어야만 양육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해 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돌봄 역할과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결과도 일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역할은 자원봉사, 여가활동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의 사회적 역

할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보람·이정규, 2016; 김명숙·고종욱, 2013; 이소정, 2013; 이필호·조용하, 2012; 이혜자·전동일, 2011; 김상범, 2011; 김수봉, 2010; 남기민·박현주, 2010; 김주현, 2007)가 대부분이다. 농어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미경 외(2017)에도 이러한 사회적 역할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여,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노인 역할을 Rosow의 역할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들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농촌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이 중요한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농촌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농촌 노인들의 역할 유형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전국(제주도 포함) 농촌지역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을 대상으로 생활시간조사표를 이용하여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성,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3단 층화 무작위추출을 사용하였고, 농촌지역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규모, 읍면, 행정리별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대상 가구선정은 골목이나 자연부락(마을)별 가구를 방문하여 진행하되, 단독주

택의 경우 한 집 건너 한 집씩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아파트의 경우는 동 및 층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조사는 설문지 Role-playing 등을 거친 농촌 지역 조사에 경험이 풍부한 27명의 면접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원은 교육을 권역별로 나누어 연구자가 사전 교육을 하였으며 질문하는 방법도 표준화하여 제시하였다. 농촌 노인들의 생활시간을 조사하기 위한 생활 시간조사표는 하루를 오전과 오후 각 12시간으로 나누고 1시간을 20분 간격으로 표시하여 시간과 함께 행동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2013년 6월13일부터 7월12일까지 약 30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1)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 농가 여부(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그로 인한 현금소득이 있는 경우를 농가로 정의), 월생활비 충분성, 종교 유무, 배우자 유무, 자녀동거 유무 등과 같은 일반적 특성과 Rosow의 역할 유형인 제도적 역할, 희박한 역할, 비공식 역할 등과 같은 노인 역할 관련변수로 구분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2>와 같다.

노인 역할은 Rosow의 역할 유형(제도적 역할, 희박한 역할, 비공식적 역할)으로 구분하였으며, 생활 시간조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표에 따르면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 등 총 9개의 활동으로 분류된다. 이 중 '이동'은 노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동하는 목적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지만, 이동하는 목적을 조사하지 않은 관계로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학습'과 '기타'는 조사 결과 0분으로 집계되어서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교제 및 여가활동'은 하위항목이 다양하며, 하위

항목 간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제 활동과 여가활동으로 세분화하였다. 따라서 통계청에서 분류한 9개 활동에서 7개 활동(개인유지, 일,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활동, 여가활동)을 역할분류에 활용하였다. 이를 Rosow가 제시한 지위와 역할 유무를 기준으로 역할유형을 구분하였다.

첫째, 일,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등은 공식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확고한 지위와 그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이 주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노인에게 지위와 역할이 동시에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도적 역할로 분류하였다. 둘째, 개인유지, 여가활동 등은 노인이라는 지위를 생리적·사회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지만, 그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특별한 역할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은 다른 사람과 어떤 특별한 역할을 기대하는 활동도 포함되지만,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농촌 노인으로써 하루 시간사용조사에서 살펴본 여가활동 내용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쉽, 매체 이용 시간사용량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으로서의 지위는 있으나 역할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희박한 역할로 분류하였다. 셋째,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활동 등은 노인의 특정 지위나 위치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되풀이하여 그러한 행동유형이 인정되고 노인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지위는 없지만 노인 스스로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비공식적 역할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역할 분류는 한계점이 있다. 첫째,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하지만 Rosow는 지위나 역할의 유무가 '있다', '없다'와 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라고 하였고(최성재·장인협, 2012), 실제 노년기의 역할이 줄어들거나 상실된다는 점과 노인의 역할을 Rosow 역할 유형에 대입한 선행연구(양영순, 2007)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인의 역할을 Rosow의 역할 유형에 대입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둘째, '비공식,

〈표 2〉 변수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생활만족도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독립 변수	일반적 특성	성 연령 학력 농가여부 월생활비 종교유무 배우자 유무 자녀동거 유무	0=남 1=여 만 연령(세) 1=무학 2=국졸 3=중졸 4=고졸 이상 0=아니오 1=예 월생활비에 대하여 느끼는 충분성 정도 1=매우 부족 ~ 5=매우 충분 0=종교 없음 1=종교 있음 0=배우자 없음 1=배우자 있음 0=자녀 비동거 가구 1=자녀 동거 가구
	역할 관련 변수	가정적 역할 건강 및 자기관리역할 사회적 역할	일 + 가정관리 + 가족보살피기 개인유지 + 여가활동 참여 및 봉사활동 + 교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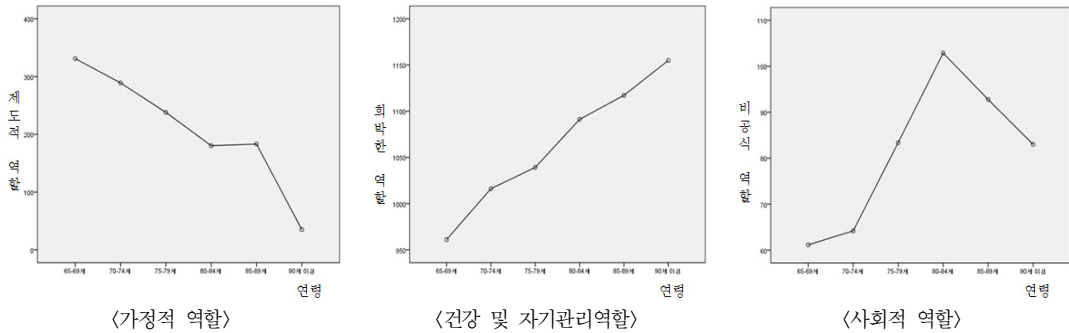
회박'이라는 한국어 표현이 역할의 중요성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osow의 역할 유형을 노인 역할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제도적 역할을 가정적 역할(가정 역할에는 돌봄이나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경제적 역할도 중요하게 포함되므로), 회박한 역할을 건강 및 자기관리 역할, 비공식 역할을 사회적 역할로 재명명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하루 시간사용에 근거하여 분류한 농촌 노인들의 역할 유형이 Rosow가 분류한 역할 유형으로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일배치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1〉 참조). Rosow는 3가지 유형의 역할의 중요성이 일생 과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가설적으로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노년기만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Rosow는 제도적 역할의 중요성이 중년기까지 서서히 증가해서 중년기 후반에 정점에 이르고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급격하게 떨어지는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회박한 역할의 중요성은 아동기에서는 높았다가 중년기 전반기까지 낮아졌다가, 중년기 후

반부터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여 노년기에 들어오면서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높아지는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비공식적 역할의 중요성은 중년기에 도달할 때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중년기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노년기에 들어와 어느 정도 낮아지기 시작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다른 두 가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하여 그 변화가 크지 않은 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80~84세를 기점으로 낮아지기 시작하여 Rosow가 말한 연령과는 차이가 있었으나, 다른 두 가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하여 그렇게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비공식 역할 그래프의 기울기는 제도적 역할, 회박한 역할과 비슷하게 급경사이지만, 실제 세로축의 수치를 살펴보면, 제도적 역할 0-400, 회박한 역할 950-1200, 비공식 역할 60-110으로 비공식 역할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농촌 노인들의 시간사용에 따른 역할을 Rosow의 역할유형에 대입해 본 결과, 노년기에 있어서 Rosow의 역할유형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 분류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 농촌 노인들의 연령별 노인역할

2) 종속변수: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초기에는 건강 중심의 협의의 개념으로 다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건강 이외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된 광의적 개념으로 변화하였다(김명숙·고종욱, 2013). 본 연구에서도 노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단편적이 아니라 다차원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생활만족도를 여러 생활영역을 다룬 장주호(2010)의 생활만족도 척도를 농촌 노인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생활영역 요인들 즉, 본인의 건강상태, 가족생활, 식생활, 경제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 주거환경, 마을(동네)의 안전상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등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alpha = .850$ 으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SPSS ver.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하루 시간사용을 토대로 분류한 노인역할이 Rosow가 분류한 역할 유형으로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값을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다. 넷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성별은 남성 39.0%, 여성 61.0%이었으며,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4.7세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은 무학 31.0%, 초등학교 중퇴/졸업 50.8%, 중학교 중퇴/졸업 이상 18.2%로 전반적으로 학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월 생활비 충분성은 부족하다가 4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통이 36.8%, 충분하다는 17.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농가는 39.9%, 종교가 있는 노인은 45.0%,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58.7%,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은 21.2%이었다.

2. 농촌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표 4〉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종교 유무와 자녀동거 유무를 제외한 성별, 연령, 학력, 농가여부, 월생활비 충분성

분성, 배우자 유무 변수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보다 남성 집단이, 75세 이상 집단보다 75세 미만 집단이, 학력이 높은 집단이, 농가 집단이, 월생활비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집단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000)

변수	구분	N(%)	변수	구분	N(%)
성별	남성	390(39.0)	농가 여부	농가	399(39.9)
	여성	610(61.0)		비농가	601(60.1)
연령	65~74세	571(57.1)	학력	무학	310(31.0)
	75~84세	351(35.1)		초등학교 중퇴/ 졸업	508(50.8)
	85세 이상	78(7.8)		중학교 중퇴/졸업	96(9.6)
	평균(세)	74.7세		고등학교 이상	86(8.6)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	587(58.7)	자녀동거 유무	자녀동거 가구	212(21.2)
	무배우자	413(41.3)		자녀비동거 가구	788(78.8)
월생활비 충분성	부족하다	456(45.6)	종교 유무	종교 있음	450(45.0)
	보통이다	368(36.8)		종교 없음	550(55.0)
	충분하다	176(17.6)			

〈표 4〉 농촌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

	변수(N)	M	SD	t/F
성별	남성(390)	22.05	4.395	6.699***
	여성(610)	20.22	3.891	
연령	65세 이상 75세 미만(571)	21.43 (b) ⁺	4.166	9.478***
	75세 이상 85세 미만(351)	20.36 (a) ⁺	4.141	
	85세 이상(78)	19.97 (a) ⁺	4.118	
학력	무학(310)	19.47 (a) ⁺	3.632	46.226***
	초등학교 중퇴/졸업(508)	21.08 (b) ⁺	4.120	
	중학교 중퇴/졸업 이상(182)	23.04 (c) ⁺	4.307	
농가여부	농가(399)	22.35	4.157	-8.929***
	비농가(601)	20.00	3.943	
월생활비 충분성	부족하다(456)	18.74 (a) ⁺	3.285	244.408***
	보통이다(368)	21.55 (b) ⁺	3.307	
	충분하다(176)	25.35 (c) ⁺	4.026	
종교 유무	종교 있음(450)	21.20	4.074	-1.829
	종교 없음(550)	20.72	4.272	
배우자 유무	유배우자(587)	21.60	4.259	-6.147***
	무배우자(413)	20.00	3.903	
자녀동거 유무	자녀동거 가구(212)	21.12	4.335	-.708
	자녀비동거 가구(788)	20.89	4.150	

***p<.001 / ⁺ 사후검증: Duncan's Multiple Ranger Test

〈표 5〉 농촌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변수		B	β	t
일반적 특성	성별(여성=1)	-.841	-.098	-3.275**
	연령	.025	.004	.141
	학력	.662	.109	3.865***
	농가 여부(농가=1)	.742	.087	2.934**
	월생활비 충분성	2.463	.536	20.995***
	종교 유무(있음=1)	.526	.063	2.530*
	배우자 유무(있음=1)	.167	.020	.657
노인 역할	자녀동거 유무(동거=1)	.140	.014	.561
	가정적 역할	.002	.099	1.936
	건강 및 자기관리역할	.000	.029	.609
	사회적 역할	.005	.139	3.978***
상수	10.956		7.796***	
R ²		.426		
Adj. R ²		.419		
F		66.611***		

* $p < .05$, ** $p < .01$, *** $p < .001$

3. 농촌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농촌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전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수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각각의 독립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다중공선성으로 회귀분석에 왜곡을 줄 만큼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 상관관계와 공선성 진단을 통해 공차한계 값이 .10보다 크고 다중공선성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5.00보다 훨씬 작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5〉는 농촌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며,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42.6%이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성별, 학력, 농가여부, 월생활비 충분성, 종교 유무 등의 일반적 특성과 역할 유형 중 사회적 역할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월생활비 충분성($\beta = .536$, $p < .001$)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사회적 역할($\beta = .139$, $p < .001$), 학력($\beta = .109$, $p < .001$), 성

별($\beta = -.098$, $p < .01$), 농가 여부($\beta = .087$, $p < .01$), 종교 유무($\beta = .063$, $p < .05$) 순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농촌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월생활비가 충분하다고 느낄수록, 사회적 역할을 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남성의 경우, 농가일 때, 종교가 있을 때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농촌 노인들의 하루시간사용량을 토대로 분류한 역할 유형이 농촌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농촌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이 중요한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요약·정리하고 이에 따른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노인들의 시간사용에 따른 역할을 Rosow의 역할유형에 대입해 본 결과, 가정적 역할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반면, 건강 및 자기관리역할은 높아지며, 사회적 역할은 변화가 크지 않았다. 이는

노년기에 있어서 Rosow가 제시한 가설을 지지함을 의미한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보다 남성 집단이, 75세 이상 집단보다 75세 미만 집단이, 학력이 높은 집단이, 농가 집단이, 월생활비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집단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월생활비가 충분하다고 느낄수록, 사회적 역할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남성의 경우, 농가일 때, 종교가 있을 때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사회적 역할이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활동을 포함하므로, 본 연구결과는 노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사회적 관계 요인, 사회참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이미경 외(201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노인역할 중 사회적 역할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많은 선행 연구 결과(이미경 외, 2017; 이보람·이정규, 2016; 이소정, 2013; 김수봉, 2010; 남기민·박현주, 2010)를 지지하는 것으로, 농촌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역할보다도 사회적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사회적 역할은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활동 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는 사회활동을 의미하므로, 이를 통해 얻은 성취감, 자기효능감으로 생활만족도를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촌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촌 노인들이 사회적 역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가여부, 월생활비 충분성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가정적 역할은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농가여부와 월생활비 충분성은 소득과 관련이 있으므로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정적 역할은 근로활동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여부, 월생활비 충분성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

났다. 이는 가정적 역할이 경제적 역할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 등의 가족 내 역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가정적 역할에 포함되어 있는 가족 돌봄은 삶의 만족도를 저해(이소정, 2013; 이해자·전동일, 2011; 김은정·정순들, 2011)하는 반면, 근로활동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보람·이정규, 2016; 이소정, 2013)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가정적 역할에는 생활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역할, 부적 영향을 미치는 가정 내 역할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둘의 상쇄 효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가정적 역할을 경제적 역할과 가족 내 역할로 세분화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종교 유무는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노년기에 그들의 경험과 사건에 대한 해석의 틀을 제공해 줌으로써 역경, 고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도 활용되며, 노년기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므로(윤현숙·원성원, 2010), 노인들이 종교를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조사대상자의 농촌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종교 관련활동은 활발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종교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대도시보다도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농사, 종교, 사회적 역할 등이 생활만족도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농가 노인은 농사를 지음으로써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사는 그들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조희금 외, 2014). 비농가 노인은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활동 등과 같은 성취감, 자아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역할에 참여하여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종교는 살아가는 지지대로 심리적 안정감을 줌으로써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킨다. 하지만 농촌의 특성상 사회적 역할,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농촌 노인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 농촌 마을 만

듣기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증적인 후속 연구(예를 들면, 농촌 마을에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순환버스 활성화 방안, 사회적 역할 및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방안, 농촌 노인들이 원하는 사회적 역할의 구체화 등)가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농촌에 수가 가장 많고, 활용도가 가장 높으면서 지역적 편차가 가장 적어 서비스접근성이 가장 높은 경로당을 활성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경로당을 거점으로 하여 여가, 건강 등 관련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 교양, 정보화, 교육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한다면 농촌 노인들의 여가시간활용에도 도움이 되며 이는 생활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참여, 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된 사항들을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참여, 봉사활동에만 초점을 둔 연구가 아니라 노인들의 일상생활 전체를 통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분석 대상에서 도외시되었던 Rosow의 역할 유형을 대입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하지만 연구를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를 위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노인 역할(활동)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 역할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이 재정립되어질 필요가 있다. 모든 생활에는 역할이나 활동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Rosow는 지위와 역할 유무에 따라서 4가지 역할로 분류하여 역할의 중요성을 희석시킨 면이 있다. 따라서 역할을 분류하는 기준을 새로이 세우고, 이에 따른 역할을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Rosow의 역할 유형은 서구의 전생애 역할을 분류한 것으로 우리나라 노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역할은 다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의 삶(생활)을 바탕으로 역할을 새롭게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노인뿐

만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정자원 경영학적 관점에서 생활시간이라는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의 역할 유형화를 제시하고, 일상생활에서 시간의 효율적 배분과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간 활용성을 제시한 데에 의의를 둔다.

참고문헌

- 1) 강신옥·방혜선(2010).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관한 비교연구. 노인복지연구, 49, 287-310.
- 2) 강지애(2007).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강희엽·이철원·이민석(2017). 노인들의 진지한 여가, 스트레스 관련 성장 및 행복감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1(1), 1-14.
- 4) 권구영·최정민(2007).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과 삶의 질 간의 관계: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8, 51-78.
- 5) 김명숙·고종욱(2013). 노인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6), 246-259.
- 6) 김상범(2011). 노인의 생산적 노화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자이존증감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수봉(2010). 노인의 생활만족도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노인복지연구, 47, 95-112.
- 8) 김왕기·한정란(201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별 만족도 및 효과-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1(1), 33-51.
- 9) 김은정·정순돌(2011). 맞벌이가정 영유아 손자녀 양육조모의 삶의 만족도: 양육보상감, 가족관계,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4, 285-310.

- 10) 김주현(2007). 노인의 생산적 활동의 복합성과 생활만족도. 한국인구학, 30(3), 57-81.
- 11) 김주현(2016). 한국여성 노인의 가족 돌봄과 생활만족도. 한국인구학, 39(2), 49-70.
- 12) 김현국 · 박영순 · 송영명(2012). 노인의 대인 관계 정도 및 여가활동 참여가 노년기 우울과 노후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6(1), 1-15.
- 13) 남기민 · 박현주(2010). 노인의 종교활동과 사회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49, 405-428.
- 14) 박평(201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9), 113-126.
- 15) 신수태 · 빈성오(2011). 대구지역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7(2), 23-51.
- 16) 양영순(2007).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의 시간사용과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6, 1-26.
- 17) 유용식(2016).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1), 129-139.
- 18) 유재남(2011). 노년기 성공적 노화와 삶의 만족도 궤적에 관한 종단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 윤현숙 · 원성원(2010). 노인의 영성과 종교 활동이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4), 1077-1093.
- 20) 이미경 · 최영순 · 남은숙(2017). 농어촌 거주 노인의 주관적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한국도서연구, 29(2), 73-90.
- 21) 이보람 · 이정규(2016). 노인의 생활만족에 대한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참여의 효과 비교. 노인복지연구, 71(2), 351-377.
- 22) 이소정(2013). 노인의 사회적 역할 유형과 삶의 만족. 한국사회정책, 20(4), 9-35.
- 23) 이정훈 · 이한우 · 이육자(2014). 노인의 공식/비공식적 생산적 활동이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66, 287-305.
- 24) 이필호 · 조용하(2012). 노인의 여가 및 자원봉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IJACE), 15(2), 27-56.
- 25) 이혜자 · 전동일(2011). 농촌, 도시지역 거주 노인의 생산적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1(2), 419-437.
- 26) 장석준(2010). 경로대학 활성화를 통한 전인적 노인교육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7) 장주효(2010). 노인의 생활영역만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8) 정순돌 · 박애리 · 기지혜(2015). 손자녀 돌봄의 종단적 유형과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 및 가족관계 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조사연구, 16(3), 45-73.
- 29) 조희금 · 이미영(2017). 농촌 노인의 생활안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1(2), 1-24.
- 30) 조희금 · 이미영 · 강혜경 · 엄가영(2014). 농촌 고령자의 일상활동능력 및 우울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6), 617-627.
- 31) 통계청(2018). 2018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보도일시: 2018년 9월 27일).
- 32) 통계청(2015). 2014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도자료(보도일시: 2015년 6월 29일).
- 33) 최성재 · 장인협(2012).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34) 최영 · 차승연(2013). 손자녀 돌봄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40(3), 183-206.

- 35) 최인희(2014). 손자녀 돌봄이 여성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돌봄에 대한 자발성과 주관적 평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6(4), 118-138.
- 36) 최인희 · 김영란 · 염지혜(2012). 100세 시대 대비 여성노인의 가족돌봄과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3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krei/index.do> (접속일자: 2019년 1월 7일)
- 38) 한상미(2011). 노인의 사회적 여가활동과 생활 만족도-여가만족과 고독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3), 157-182.
- 39) McDowell, I. & Newell, C.(1987). Quality of life and life satisfaction, measuring health, a guide to rating scales and questionnair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40) Neugarten, B. L. , Havighurst, R. J. & Tobin, S. S.(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1), 134-43.

- 투 고 일 : 2018년 12월 01일
- 심 사 일 : 2018년 12월 24일
- 게재 확정일 : 2019년 02월 14일